

# 1964年度 KORSTIC 事業展望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KORSTIC)

事務總長 吳 益 相

“強力한 科學技術은 國家的 要請이고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活動은 強力한 科學技術을 위한 前提條件이기 때문에 圓滑한 情報流通 System 은 政府의 가장 큰 關心事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1963年 1月 10日 付로 美國의 大統領 科學諮問委員會가 “Science, Government and Information—The Responsibilities of the Technic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in the Transfer of Information”이라는 題目아래 發表한 報告書의 한 句節입니다. 1957年 人工衛星 發射에 뒤늦은 美國에서는 從來의 科學技術政策에 대한 全般的인 分析 및 再檢討가 行하여졌고 그 結果로서 蘇聯과 같은 科學技術情報센터 VINITI(職員 2,000名으로서 世界最大의 情報센터)를 中心으로한 組織的인 情報活動의 缺如가 美國으로 하여금 前例없이 主導權을 奪기게한 重要原因의 하나라고 指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大統領 科學諮問委員會는 1958年과 1963年 二次에 걸친 報告書에서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活動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이미 散在되어 高度로 發達되어 있는 400餘個 情報센터 間의 連絡과 調整을 期할수있는 中樞的 機關의 必要性을 主張하고 그 設立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美國의 이러한 動向과 아울러 世界の 各國, 特히 先進國의 科學技術情報를 導入하여 自國의 科學技術振興에 礎石으로 삼지 않으면 안될 後進諸國은 앞다투어 中樞的인 情報센터를 設立하여 効率的인 情報活動을 展開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962年 1月 1日에 유네스코 韓國委員會內의 한 部로서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誕生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後 2年間 歷代 유네스코韓委의 事務總長이 傾注한 끊임없는 努力과 科學

技術界의 指導的 人士의 協助와 鞭撻 및 政府當局의 積極的인 後援은 本센터의 急進的인 發展을 가져왔고, 마침내 유네스코韓委에서 벗어나 獨立機關으로서 좀 더 活潑한 活動을 期約코져 今年 3月 2日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로 發足하기에 이르렀고, 權寧大 博士를 會長으로하는 理事會 밑에 本人이 事務總長의 重任을 맡게 된것입니다.

事務總長으로 就任한 後 情報活動의 必要性和 重要性은 한층 더 切感되는 바이며 科學技術振興을 前提로 하는 自立經濟確立의 時急性은 本센터의 任務遂行에 있어 錯誤나 遲滯가 許容되지 않는 正確性和 緊迫性을 要請하고 있음이 本人 및 全職員의 非常한 覺悟를 促求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本센터는, 情報活動을 合理的으로 展開하기 爲해 緻密한 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計劃된 事業은 所定 時間內에 完遂하여야 한다는 信條아래, 運營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外國後進國家의 情報센터와 本情報센터는 그 設立過程에 있어서 大端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印度, 泰國, 印尼 및 파키스탄 등 모두가 다 Unesco의 技術援助와 先進國에서 派遣된 專門家의 指導밑에서 三, 四年의 準備期間을 가졌는데 反하여 本센터는 어떠한 外國援助도 없이 半年 남짓한 準備期間으로 情報活動을 始作하여 2년이 좀 넘는 지금에야 美貨 97,000 弗에 該當하는 UNTAB의 技術援助가 確定되어서 導入될 段階에 있습니다. 따라서 本센터는 앞으로 相當한 期間을 對外的인 活動과 더불어 內的인 問題에 대한 研究와 準備를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1964年度에 計劃된 重要事業을 對內 對外的 兩面으로 區別하여 展望하여 보겠습니다.

### 對內活動

무엇보다도 가장 緊急하고 重要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는것이 建物입니다. 1962년에 導入한 約 1,000種의 雜誌 10年分은 書架에 整理하여 두지도 못하고 짐작처럼 싸놓았으며 印刷機 및 複寫機를 設備하여 둔 機械室은 비좁아 조금이라도 業務量이 增加될때에는 注文에 應하지 못할 狀態이며 現 職員 29名에는 25坪의 場所가 割當되어 廊下까지도 利用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거기다 UNTAB의 技術援助에 依하여, 外國專門家 한 名이 二, 三個月內에 來韓할것이며 美貨 54,000弗에 該當하는 複寫機 및 印刷機 등이 今年內에 導入될 豫定입니다만 專門家가 使用할 事務室이나 機械를 設置할 場所는 全然 없는 것입니다. 參考로 現在 使用하고 있는 建物の 坪數와 所要坪數를 比較한다면

	現 使用坪數	所要坪數
職 員 室	24坪	70坪
圖 書 室	15坪	130坪
機 械 室	9坪	80坪

한마디로, 當센터의 運命은 建物を 確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問題에 時急한 解決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事業計劃은 水泡로 돌아갈 것이며 外援에 對한 國家的 體面의 損傷도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科學, 技術, 産業의 各 分野를 支援하고 있는 情報센터의 存廢는 어떤 한 分野에 屬해 있는 研究所의 存廢와는 國家的 見地에서 次元이 다른것이라 생각됩니다. 本센터는 建物確保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할 것이며, 한편 必要性을 絕對的으로 認定하고 本센터를 誕生하게 한 政府當局의 協助를 굳게 믿는 바입니다.

1962년에 注文하여 1963年 6월에야 完全히 到着한 過去 5年 乃至 10年分의 情報資料 約 1,000種(雜誌, 研究報告書, 特許明細等)에 對한것과 1963년에 새로 蒐集한 資料 約 300種 및 交換에 依하여 入手한 非賣品 資料 約 200種, 都合 1,500種에 關한 所藏文獻 List를 作成하여 國內의 구석 구석에까지도 到達할 수 있도록 配布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蒐集된 資料의 內容物 即 論文이나 記事를 吸收하기 쉬운 狀態로 變化시키는 情報處理過程에 있

어서 過去처럼 全分野를 網羅하지 않고 韓國의 現實에 呼應하여 時急하고 重要한 分野에 對한 文獻만을 選擇하는 重點主義的 方法을 施行할 것입니다. 이것은 本센터의 制約된 豫算과 人員으로서 全分野에 對하여 情報處理를 한다는것은 結局 全分野에 對해서 不實한 Service밖에 할수없다는 結論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勿論 全分野에 對하여 充實한 Service를 할수있게될 날을 苦待하고 있습니다만은) 採擇한 分野는, 韓國의 最大 目標가 自立經濟確立이고, 이를 위한 가장 着實하고 빠른 길은 工業에 있으며, 또한 過去 本센터를 제일 많이 利用한 곳은 生産企業體이었으므로, 工學 및 工學에 關한 것을 爲主로 하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方法으로 處理된 所謂 二次情報는 科學技術 文獻速報 및 外國特許速報의 兩刊行物에 掲載되어 全國의 利用者에게 傳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目錄集(上記 두 速報를 가르킴)에 發表되지 못한 分野에 對해서는 Contents-Sheet Service의 強化로 科學者에 不便없이 充分한 情報를 吸收할수 있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情報센터로서 갖추지 않으면 안될 機能의 하나는 어떠한 主題에 對하여 文獻檢索을 可能케 하는것입니다. 이 機能은 누가 研究를 始作하려 할때 그 研究에 關係되는 過去의 모든 文獻을 찾아 줌으로서 重複되는 努力과 時間의 浪費를 避하게 하고 効率的인 研究를 實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文獻檢索方法에는 電子計算機를 利用하는 高次的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現 本센터의 豫算과 人員으로는 期待하기 힘들고 外國의 抄錄誌와 索引誌를 組職的으로 活用하므로써 過去 外國情報센터에만 依存하던것을 止揚하겠읍니다.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活動은 世界的으로도 歷史가 짧은 새로운 分野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專門家가 한분도 없는 處女分野입니다. 모든것을 새로 開拓하지 않으면 안될 本센터의 急先務의 하나는 專門家の 養成입니다. 前記 UNTAB의 技術援助에 依하여 6名의 職員을 漸次的으로 海外에 派遣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內部에서는 語學, 圖書館學, 分類學 및 情報處理의 機械化에 對한 研修會를 가져 當센터의 任務遂行에 完備된 態勢를 確立할 것입니다. 第一次 自體訓練으로서,

講師를 招致하여 佛語 및 獨語에 대한 講義를 尙當 600分씩 職務時間後에 받게 하고 있으며 3個月間의 이 訓練이 끝나면 圖書館學과 分類學에 대한 研修會가 잇 달르게 될것입니다. 情報處理 및 그 機械化에 대한것 은 來韓한 外國人 專門家를 中心으로 Seminar의 形式으로 研究될 것입니다.

#### 對外活動

過去 여러차례에 걸쳐 라디오, 新聞 및 Pamphlet의 配布 등으로 PR活動을 하여왔습니다만은 本센터의 存在조차도 모르는 科學者나 技術者가 아직도 相當히 많은줄로 믿습니다. 特히 地方에는 여러가지 制約으로 充分히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所藏文獻 List, 目錄集 및 Contents Sheet의 標本, 業務案内書 등을 大量 印刷하여 本센터가 提供할수 있는 Service를 全國의 모든 利用對象者에게 具體적으로 周知시킬 수 있도록 配布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中樞적인 情報活動이 成功하려면, 그 나라의 科學, 技術, 産業, 各界에 對한 實態把握과 그 變化에 對한 敏感性이 必要합니다. 本情報센터는 이러한 意味에서 過去에도 여러가지 調査를 施行하여 왔고 앞으로도 繼續할 것입니다. 特히 今年 새로 시작한 科學者業績調査는 現在까지 韓國科學者가 쌓아 올린 業績을 發表된 文獻(論文)의 立場에서 調査하여 “누가 무엇을 하였는가” 또한 “어느 問題에는 누가 專門인가”를 밝혀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結果는 “韓國科學者業績目錄”이라는 題目아래 國英文으로 刊行되어 國內外로 널리 配布될 것입니다. 이 目錄은 本센터의 여러가지 事業에 指針이 될뿐만 아니라, 交換에 依한 外國의 貴重한 非賣品 資料蒐集에 있어서 主翼을 擔當할 것이며 政府의 研究費 支出에 있어서 合理的인 配當과

外國機關으로 부터의 研究補助費 誘致에 貢獻할 것이 라 믿습니다. 韓國의 科學者에게는 自己業績을 널리 國內外에 發表하고 評價받을 좋은 機會라고 생각되오니 積極協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方面에서 調査된 資料는 政府의 科學技術政策을 樹立하는 데에 必要 不可缺한 要素가 될것입니다. 外國先進國에서는 全關係에 科學技術政策樹立을 爲한 專擔者를 配置하여 恒常 이 問題에 대한 檢討를 게을리 하지않는 反面 後進國일수록 擔當關係 以外에는 考慮하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本센터는 科學技術政策에 關한 文獻을 蒐集하여 國內 調査活動에서 얻은 資料와 더불어 振興策樹立의 參考資料로서 行政府當局에 提供할 것이며 또한 積極적으로 勸奨도 할것입니다.

本센터가 아직 그 發展의 初期에 있고 豫算의 制約으로 充分한 資料를 蒐集하지 못하고 있어 滿足스러운 Service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으나 海外의 여러 情報센터와의 不斷한 連絡과 緊密한 紐帶로서 여러가지 困難을 克服할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 結 論

情報活動은 어느 한 特殊團體만이 하는것이 아니라 全國의 研究機關 및 生産企業體가 參與하여야할 活動인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本센터의 位置는 人體의 心臟과 動脈에 該當합니다. 今年은 그동안 本센터가 貯藏하였던 Energy를 對外的으로 積極 發散하기 始作하는 時라 하겠읍니다. 科學, 技術, 産業, 各界의 呼應과 協助는 本센터로 하여금 名實 共히 科學技術에 關한 情報의 媒介體로서 科學技術振興에 寄與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經濟復興에 內燃機關으로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